

제주지역과 중국 중서부지역 간
교류협력 방안 해외사례조사 결과

2016. 5

제주발전연구원

1. 출장 개요

① 출장 목적

-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간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기록하며 G2 국가로 성장하였으며, 최근에는 지역별 성장동력 확보와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음
- 그동안 동부연안지역 위주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인해 지역불균형을 초래하였던 중부내륙지역이 새로운 거점도시로 부상하고 있음
-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, 신형도시화 정책 등은 중국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도 내륙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
- 따라서 소비를 중심으로 하는 내수경제 활성화, 지역별 거점 도시의 부상은 국가차원이 아닌 지역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중국 교류방안이 필요함
- 중국과의 관계가 긴밀해짐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 외에도, 지역 수준에서의 대중국 교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,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안휘성, 하남성, 호북성, 사천성 등 중국 중서부지역과의 교류확대를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음
- 본 해외조사에서는 중서부 주요지역 방문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중국 한국대사관 지차제관을 방문하여 한중 교류 현황 및 제주-중국 지역의 교류협력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 및 간담회를 진행하였음
- 이와함께 제주발전연구원과 교류협력이 체결된 중국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 연구원을 방문하여 연구원차원의 실질적인 교류협력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였음

② 출장 개요

- 출장기간 : 2016년 5월 19일(목) ~ 5월 22일(일)(3박 4일)
- 출장국가 및 지역 : 중국 북경시
- 출장자 : 정지형(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)

③ 출장 일정

일자	방문 기관 및 시간	방문 목적
5.19(목)	제주 → 북경 (이동)	· 제주 출발(15:50) - 북경도착(17:25)KE879편
5.20(금)	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 09:30-11:30	· 한중 대외교류현황 청취 · 제주-중국간 교류협력 구축 방안 의견청취
	중국사회과학원 아태 글로벌전략 연구원 14:00-16:00	· 연구기관 간 실질적 교류협력방안 논의 및 의견 청취
5.21(토)	중국인민대학교 및 대외경제무역대학교 방문 10:00 - 17:00	· 연구과제 관련 보고서 및 도서 구입
5.22(일)	북경 → 제주 (이동)	· 북경 출발(10:50) - 제주 도착(14:25) KE880편

2. 인터뷰 주요 내용

1)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

□ 개요

- 일시 : 2016년 5월 20일 09:30-11:40
- 장소 : 中國 北京市 朝陽區 第三使館區 東方東路20号
- 면담자 : 지방협력 파견관, 심영린 2등 서기관

□ 주요 내용

1) 한-중 지자체 교류현황

- 2015년 2월 기준 한국의 전체 국제교류 1,442건 중 중국이 574건으로 39.8%를 차지하고 있음
- 한국 222개 자치단체 중국 350개 지방정부가 574건의 교류관계 체결
 - 자매결연은 202건으로 한국 160개 자치단체가 중국 184개 지방정부와 교류를 하고 있음
 - 우호교류는 372건으로 한국 158개 자치단체가 중국 230개 지방정부

와 교류를 하고 있음

- 한국의 1개 자치단체가 중국 지방정부와 평균 2.6건의 교류관계를 맺고 있으며, 중국의 1개 지방정부가 한국 자치단체와 평균 1.6건의 교류관계를 맺고 있음

구분	계	자매	우호
전체	1,442	652	790
중국	574	202	372
비중(%)	39.8	31.0	47.1

- 연도별로는 지방자치가 시작 직전인 1994년부터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했으며,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
- 시도별로는 경기도(13.2%), 서울시(10.8%), 전라남도(9.1%) 순으로 교류건수가 많음

시도별	계	자매	우호	비중(%)
합계	574	202	372	
서울시	62	30	32	10.8(2)
부산광역시	34	14	20	
대구광역시	18	5	13	
인천광역시	35	6	29	
광주광역시	16	5	11	
대전광역시	13	6	7	
울산광역시	15	3	12	
경기도	76	33	43	13.2(1)
강원도	45	11	34	
충청북도	27	8	19	
충청남도	45	12	33	
전라북도	38	11	27	
전라남도	52	17	35	9.1(3)
경상북도	45	16	29	
경상남도	40	17	23	
제주특별자치도	13	8	5	

- 중국 지구별로는 동부지역이 314개 54.7%로 10개 省·市에 집중

되어 있음

- 특히 2015.10.19일 시장자치구와 경상남도간의 우호협력 체결에 따라 무교류 성급 지역이 없어 졌음

지 구 (성시수)	교류실시 지방정부	소속 省·市(교류실시 지방정부 수)
계 (31)	574 (100%)	-
西 部 (12)	51 (8.9%)	重慶(6), 四川(11), 貴州(1), 雲南(5), 廣西(10), 陝西(3), 甘肅(3), 青海(3), 寧夏(2), 西藏(1), 新疆(1), 內蒙古(5)
東 部 (10)	314 (54.7%)	北京(24), 天津(14), 河北(22), 上海(22), 江蘇(54), 浙江(41), 福建(8), 山東(108), 廣東(16), 海南(5)
中 部 (6)	67 (11.7%)	山西(9), 安徽(11), 江西(9), 河南(17), 湖北(15), 湖南(6)
東 北 (3)	142 (24.7%)	遼寧(73), 吉林(47), 黑龍江(22)

- 대부분 자치단체가 대중국 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류실시하고 있으며, 교류지역이 東部·東北地區에 집중되어 있으나, 2011년부터는 중서부지역으로 확대되는 추세임
 - 2011년부터 신규 교류체결 실적 91건의 43%인 39건이 중서부지역임
- 교류내용면에서는 대부분 공공부문간 교류가 우선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교류, 청소년교류 등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라 할 수 있음
- 경제교류는 박람회 참가, 경제대표단 방문 등이 주요 활동 내용임

2) 시사점

- 제주의 주요 특산물을 활용하여 중국과의 교류협력이 필요
 - 예를 들어 말의 경우 중국 내몽고와 주요 공통점이 있어 교류협력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임
 - 또한 해산물의 경우 중국 내륙지역에는 흔치 않으므로 이를 활용하

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

- 중국은 최근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도시화, 소비촉진화를 모색하고 있어 이를 활용할 방안 모색이 필요함
 - 특히, 서부대개발, 중국굴기, 일대일로로 이어지는 중국 중서부 내륙 지역의 발전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
 - 하남성(성회: 정주) 외관실업 경우 항공물류 등을 활용하여 한국과의 교류를 확대하고자 함
 - 하지만 최근 대부분의 교류협력 지역이 섬서성(성회: 서안)에 몰려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
- 중국과의 교류 확대를 위해서는 중국 사무소를 충분히 활용해야 함
- 또한 주중국 한국대사관에서는 매년 한-중 우호주간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중국에 제주를 홍보하는 전략과 이와 함께 교류협력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

2) 중국사회과학원 아태 글로벌전략연구원

□ 개요

- 일시 : 2016년 5월 20일 14:00-16:00
- 장소 : 北京市东城区张自忠路3号东院
- 면담자 : 朴光姬 科研处张(박광희 과연처장)

□ 주요 내용

1) 교류현황

-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 글로벌전략연구원은 2012년 제주발전연구원과 교류협력 MOU 체결이후 지속적으로 교류를 진행해오고 있음
 - 2012년 4월 MOU 체결, 2013년 8월 및 2015년 12월 공동국제학술세미나를 진행하였음
-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 글로벌전략연구원의 경우 제주발전연구원을

- 제외한 한국의 여러 연구기관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진행하고 있음
- 대외경제정책연구원, 외교연구원 등과의 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, 기타 외국 연구기관과도 교류를 진행하고 있음
- 또한 방문연구자 시스템을 활용하여 인적교류 진행하고 있음
- 기타 연구기관과의 교류 시 매년 다양한 주제로 교류가 진행되고 있으며, 특히 한중 간 주요 관심사 위주의 공동학술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음
-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 글로벌전략연구원의 주요 분야가 중국 주변 국가와의 국제관계, 한반도 정세, 한중 관계 등 이므로 이에 관련한 주제 발굴과 연구교류가 필요

2) 시사점

-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 글로벌전략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은 지속적으로 교류를 진행하고 있지만 향후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서는 다양한 주제발굴이 필요함
- 특히 협소한 지역주제보다는 제주-중국, 한국-중국의 관심사가 필요
-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 글로벌전략연구원의 경우 중국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일대일로와 관련하여 일대일로 연구실이 개설될 예정이므로 이와 연계한 방안 모색이 필요
- 제주의 경우 육상 경제벨트보다 해상 실크로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연계한 지속적인 연구교류가 필요
- 6월 29일 제주발전연구 주최로 개최 예정인 '한중,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발전과 협력 방안' 국제세미나에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 글로벌전략연구원에서 참여기로 하였음
- 또한 양 기관의 공동연구 혹은 양기관 연구자의 연구참여 형태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
- 공동연구 및 연구참여는 모두 가능하므로 공동 관심사 주제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